

여중군자 장계향과 운악 이함의 사회적 실천*

장윤수**

■ 차례 ■

- I. 서론
- II. 사회적 실천성의 유학적 배경
- III. 여중군자 장계향의 사회적 실천
 - 1. 사회적 실천의 궁극 의도 : 聖人에로의 길
 - 2. 사회적 실천의 구체 사례
- IV. 운악 이함의 사회적 실천
- V. 맺음말

【국문초록】

필자는 이 글을 통해 장씨부인과 그 시아버지인 운악 이함의 사회적 실천을 설명하고자 했다. 특히 양자 간의 유기적 관계에 주목하면서 이함의 사회적 실천성과 그 家風이 장씨부인의 삶을 구성하는 데에 많은 영향을 끼친 사실을 해명하려 했다.

장씨부인은 친정아버지인 경당 장홍효로부터 聖人の 학문, 즉 敬의 이론과 실천을 배웠으며, 시아버지 이함으로부터는 이웃과 사회를 향한 뜨거운 관심과 함께 나누는 삶을 배웠다. 즉 장씨부인은 엄격한 자기성찰과 수양이라는 내면적 실천에

* 이 논문은 2014년도 대구교육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으로 연구한 것임.

** 대구교육대학교 윤리교육학과 교수

서는 아버지 경당의 영향을 깊게 받았고, 개방적 인품과 타인을 향한 관심 및 사회적 실천이라는 측면에서는 시아버지 운악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다. 필자는 이 논문을 통해 장씨부인의 삶과 인격이 친정과 시댁의 家風을 균형 있게 흡수한 결과임을 입증하고자 했으며, 장씨부인과 이함의 행적을 철저하게 문헌을 중심으로 하여 재구성하였다.

이 글은 다음 세 가지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첫째, 장씨부인의 삶을 사회적 실천이라는 측면에서 고찰함으로써 선행연구의 연구범위를 확장하였다. 둘째, 장씨부인의 사회적 실천을 시댁 가풍 특히 시아버지인 운악 이함과 관계에서 해명함으로써 그 삶을 다양하게 해석하였다. 셋째, 논지의 전개과정에서 언급된 일화들을 철저하게 구체적 문헌들을 통해 재구성함으로써 구체적 전거가 약한 선행연구의 약점들을 보완하고자 하였다.

주제어

사회적 실천, 성인, 이함(운악), 장씨부인(장계향), 장흥효(경당)

I. 서론

노산 이은상(1903~1982)은 신사임당을 예찬하여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다.

우리 역사상에서 가장 모범적이요 대표적인 부인 한 분을 말하라 하면 두 말 없이 粟谷 선생의 어머니님 師任堂 申氏 부인을 내세울 것이요, 또 거기엔 어느 누구도 아무런 이의를 말하지 않을 것이다.

혹시 어진 어머니를 말하라 하면 ……, 또 어버이에게 효도한 여성을 헤아린다면 …… 손꼽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다시 학문이 높고 시문에 능하던 부인을 찾는다면 …… 무릇 수

백 명의 여성을 헤아릴 수 있을 것이요, 글씨 잘 쓰던 부인으로는 益齋 李齊賢의 손녀 李氏와 仁齋 姜希顔의 따님 姜氏와 특히 “草書 잘 쓰던 敬堂 張興孝의 따님 張氏”(필자강조)같은 이들을 일컬을 수 있을 것이며, 그림 잘 그리던 여류 화가로는 …… 자못 많은 여성들을 헤아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모든 여성들은 다만 한두 가지에 능할 뿐이어서 각각 그 방면에만 이름을 끼쳤지마는 다만 한 분 뛰어난 인격자이면서 덕이 높은 부인이요 어진 어머니이면서 아버지에게 지극한 효녀이며 학문이 깊고 詩文에 능하면서 글씨를 잘 쓰고 그림을 잘 그리고 刺繡에까지 능했던 그야말로 “**교육가요 인격자요 효녀요 賢婦人이요 학문가요 시인이요 書家요 畫家인 종합적인 모범 부인**”(필자강조)이야말로 이 節任堂 申氏 부인인 것이다.¹⁾

한 마디로 신사임당이야말로 모든 면에서 완벽한 여성의 상징이자 모범이라는 말이다. 그리고 사임당에 비할 때 다른 이름난 여성들은 다만 한두 가지에 능하여 그 분야에 이름을 남긴 사람들일 뿐이라고 한다. 아마도 이러한 노산의 평가는 일반인들의 인식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필자의 문제의식은 바로 여기에서 출발한다.

노산은 ‘貞夫人安東張氏’(張桂香²⁾)를 칭하여 “특히 草書 잘 쓰던 敬堂 張興孝의 따님 張氏”라고 하였다. 장씨부인이 초서를 잘 썼다는 사실 자체는 틀림이 없다. 초서에 능했던 淸風子 鄭允穆(1571~1629)이 장씨부인의 ‘赤壁賦’ 서체를 보고 깜짝 놀랐을 만큼³⁾ 부인의 초서 솜씨는 일품이

1) 이은상, 『사임당의 생애와 예술』완성7판(서울: 성문각, 1994), 서문.

2) ‘貞夫人安東張氏’에 대한 지칭은 여러 가지로 가능하겠지만, 이 글에서는 ‘安東張氏’ 혹은 ‘夫人’으로 표기하기로 한다.

3) 『貞夫人安東張氏實紀』附錄, ‘行實記’(『國譯貞夫人安東張氏實紀』, 李載浩 譯, 1999, 24쪽) 참조. 번역은 기본적으로 ‘國譯’ 자료를 따랐으며, 고쳐 번역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수정하였음. 그리고 한자 원문은 문맥을 이해하는 데에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생략하였음. 아래에서 『國譯貞夫人安東張氏實紀』를 인용할 때 『국역실기』

었다. 그렇지만 부인은 15세 무렵에 文藝가 부인들에게 적당하지 않은 일이라고 여겨 이를 단호히 끊어버리고,⁴⁾ 『禮記·內則篇』에 나오는 여성에 대한 경계의 가르침으로 자신을 단속하고 부인의 四德을 갖추었다.⁵⁾ 그러므로 장씨부인의 가장 특징적인 삶을 ‘초서에 능한 점’ 하나로 평가하는 것은 부인의 삶을 제대로 평가한 것이 아니다.

또한 노산은 신사임당을 “교육가요 인격자요 효녀요 賢婦人이요 학문가요 시인이요 書家요 畫家인 종합적인 모범 부인”이라고 평하였다. 이 평가에 대해 이의를 달고 싶은 생각은 없으나, 신사임당을 제외한 다른 여성들은 다만 한두 가지에 능할 뿐이어서 각각 그 방면에만 이름을 끼쳤다고 하는 언급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다. 특히 장씨부인의 경우에 후대인들이 부인을 ‘女中君子’⁶⁾ 혹은 ‘女中學者’⁷⁾라고 칭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일찍이 小山 李光靖(1714~1789)은 부인으로서 시를 잘 짓는 이는 고금에 한둘이 아니었지만 유독 중국의 侯夫人만을 칭송하는 것은 그녀의 행위가 禮義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았으며, 또한 程明道(顥)와 程伊川(頤) 두 선생을 낳고 길렀기 때문이라 하고서, 장씨부인의 삶과 인격이 후부인에 비교해 보더라도 우열을 가리기 어려울 정도로 출중하다고 평하였다.⁸⁾ 이러한 평가들은 모두 초서에 능한 점만으로 장씨부인을 특징짓는 것이 온당하지 못함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장씨부인의

로 줄여서 표기함.

- 4) 『貞夫人安東張氏實紀』附錄, ‘傳家寶帖跋(又) : 李紀遠’(『국역실기』, 38쪽) 참조.
- 5) 『貞夫人安東張氏實紀』書, ‘小識-李象靖’(『국역실기』, 20쪽) 참조. 여기서 말하는 四德이란 婦德(貞順함)·婦言(應對를 잘함)·婦容(온순함)·婦功(길쌈을 잘함)을 말한다.
- 6) 『葛庵集』附錄, 卷2, ‘葛庵行狀’ 참조.
- 7) 『葛庵集』附錄, 卷2, ‘葛庵墓誌銘’ 참조.
- 8) 『貞夫人安東張氏實紀』附錄, ‘傳家寶帖跋 : 李光靖’(『국역실기』, 35-68쪽) 참조.

삶의 행적을 제대로 考究해보면 이 분이야말로 “교육가요 인격자요 효녀요 賢婦人이요 학문가요 시인이요 書家요 畫家인 종합적인 모범 부인”이라 할 수 있다. 그러한 면에서 이 글의 주제(“여중군자 장계향과 운악 이함의 사회적 실천”)는 장씨부인의 삶을 ‘종합적인 모범 부인’으로 이해하기 위한 外延의 확장이 될 수도 있다.

다행스럽게도 근자에 들어 장씨부인에 대한 연구성과들이 상당수 도출되고 있는데, 특히 경상북도는 張氏夫人의 삶과 사상이 가지는 ‘範本的’의미를 높이 평가하여 여러 가지 방식으로 기념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경상북도 산하단체인 ‘경북여성정책개발원’은 주목할 만한 사업들을 일관성 있게 전개해 가고 있으며, 또한 ‘장계향선양회’가 경상북도 각 지역별로 조직되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그렇지만 일부 연구의 경우에 객관성이 부족한 경우도 있다. 典據가 약해 실제사실로 받아들이기 힘든 ‘전해오는’ 이야기들을 여과 없이 그대로 전달하거나, 아니면 사실과 맞지 않는 ‘가공의’ 이야기를 스토리텔링이라는 명목으로 전하기도 한다. 노산의 경우처럼 장씨부인을 충분히 평가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무작정 선양하려는 태도 또한 문제가 많다. 장씨부인과 관련한 각종 자료들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그녀의 생애를 정확하게 고증해낼 필요가 있고, 그리고 나서 이를 바탕으로 하여 그녀의 삶과 사상적 의의를 진솔하게 그려내야 한다. 그러한 이유에서 필자는 이 글에서 언급하는 대부분의 사례에 대해 철저하게 『貞夫人安東張氏實紀』와 『雲嶽集』을 중심으로 한 구체적인 전적에 의거하여 논의를 전개해 나가고자 한다.

종래 연구들 중에서 장씨부인의 ‘사회적 실천’을 주제로 삼거나, 특히 시아버지인 운악 이함의 사회적 실천성을 장씨부인과 함께 주제화한 것은 거의 주목되지 않는다. 필자는 여기에서 장씨부인과 운악 이함의 삶을

사회적 실천성의 측면에서 이해해보고, 특히 양자 간의 유기적 관계성을 주목하고자 한다. 그러기 위해서 우선 유학에 있어서 사회적 실천성의 의미를 논해야 하는데, 이것은 장씨부인과 운약의 사회적 실천이 ‘완전한 인격’[聖人]을 지향하는 유학적 삶의 중요한 한 부분임을 해명하는 일과도 같다.

II. 사회적 실천성의 유학적 배경

우리가 항상 부딪치는 근본적인 문제의 하나는 “나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라는 물음이다. 이 물음이 심각한 윤리문제로 제기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들이 복잡한 인간관계 속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즉, 인간이 사회생활을 하고 있다는 현실 자체가 우리들에게 어려운 실천문제를 안겨 주는 근본 이유가 된다. 그러므로 “나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라는 실천적 문제에 대한 답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의 의미에 대해 깊이 성찰해야 한다.⁹⁾ 특히 유학에서는 인간의 ‘사회적 의미’를 강조한다. 그러한 이유에서 유학적 자아를 ‘공동체적 자아’(communal self)라고 할 수 있다. ‘자아’ 개념은 원래 서양철학에서 강조하는 것이나, 최근에는 유학을 비롯한 동양철학에서도 자아의 문제를 주목하고 있다. ‘공동체적 자아’라는 개념은 서양철학의 중요 주제인 자아 개념을 유학적 관점에서 풀어낸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성리학에서는 모든 인간에게 본연의 마음[心]이 내재되어 있다고 보

9) 김태길 외, 『윤리와 이념』개정판(서울: 박영사, 1994), 24쪽 참조.

며, 또한 이러한 마음은 지극히 선하고 거짓 없이 순수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본연의 마음을 본성[性]이라고도 하는데, 이 마음은 하늘과도 통하고 인간 서로 간에도 통한다고 본다.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 성리학자들은 인간이 사회 및 타인과 결코 분리될 수 없는 공동체적 존재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萬物共同性의 이념은 北宋代의 철학자 張橫渠(載)의 『西銘』에 잘 드러난다.

乾은 <하늘로서> 아버지라 불리고, 坤은 <땅으로서> 어머니라고 불린다. 나는 여기서 조그만 모습으로 그 가운데 뒤섞여 있다.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것을 내 몸으로 삼고, 하늘과 땅을 이끌고 가는 것을 내 본성으로 삼는다. 사람들은 모두 한 배[腹]에서 태어난 형제이고, 만물은 모두 나와 더불어 살아가는 동료이다.¹⁰⁾

이러한 시각에서 보면 ‘나’라는 자아는 단순히 개인적 자아의 의미로만 이해할 수 없으며,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공동체적 자아’로 이해해야 한다. 그러므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물음도 혼자만의 단독적 삶 속에서 이해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남과의 관계 즉 사회 속에서의 자신의 역할과 의무를 고려해서 생각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유학에서 말하는 사회, 즉 공동체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유학에서는 이것을 크게 세 부분으로 구분하고 있다. 첫째, 자연적 공동체로서 부모와 자식의 결합을 기준으로 하는 ‘가정’[家] 공동체이다. 둘째, 유교적 가치관과 도덕의식을 계승하고 연마하는 문화적 공동체로서 스승과 제자의 결합을 기준으로 하는 ‘학문’[學] 공동체이다. 그리

10) 張載, 『張載集』, 「正蒙·乾稱篇」.

고 마지막으로, 작계는 鄉村 사회로부터 크게는 국가 사회의 차원으로 확대되는 ‘사회’[鄉·國] 공동체이다.¹¹⁾ 필자는 이 글에서 ‘사회적 실천’이라 할 때의 ‘사회’의 의미를 주로 ‘가정’[家] 공동체와 ‘사회’[鄉·國] 공동체의 의미에 집중시키고자 한다.

통상 ‘사회적’이라는 의미를 ‘사회’[鄉·國] 공동체에 한정시키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유가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사회’는 당연히 ‘가정’이다. 원래 ‘國家’라는 개념 또한 周代 봉건제 하에서의 ‘國’과 ‘家’를 통괄한 개념으로 생겨난 역사용어로서, ‘nation’이나 ‘state’의 번역어로 쓰이는 근대적 의미에서의 ‘國家’라는 말과는 구분된다.¹²⁾ 전통 중국 사회에서는 超國家的인 천하 개념이 ‘國家’ 또는 ‘國’의 개념보다 더 일반적으로 사용되었고, 천하를 이루는 기본 단위인 가정[家]이 그 무엇보다도 강조되었다. 그래서 현대신유학자 梁漱溟은 서양인이 국가와 개인을 중시하는 반면, 중국인은 천하와 가정을 중시했다고 평하였다.¹³⁾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필자는 이 글에서 다루는 ‘사회’의 外延的 의미에 ‘가정’을 중요한 요소로 포함시키고자 한다.

그렇다면 ‘사회적 실천’이라고 할 때의 ‘실천’의 의미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유학은 이론과 실천의 합일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런데 실천의 의미에는 ‘개인적 실천’과 ‘사회적 실천’ 두 종류가 있다. 성리학적 인간의 이상은 이 두 가지의 실천성, 즉 內·外的, 개인·사회적 실천을 모두 겸비한 敬義挾持의 삶에 있다. 그렇지만 학자에 따라 무엇이 더 특징적으

11) 금장태, 『유교의 사상과 의례』(서울: 예문서원, 2000), 192-3쪽 참조.

12) 溝口雄三 外 編著, 『中國思想文化事典』(서울: 민족문화문고, 2003), 295쪽 참조.

13) 이동철 外, 『21세기의 동양철학』(서울: 을유문화사, 2005), 269쪽 재인용.

로 드러나는지에 대해서는 말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퇴계의 학문에서는 敬을 위주로 한 내적 수양의 개인적 실천성이 두드러진 반면, 남명의 학문은 義를 위주로 한 사회적 실천성이 강조된다.

그러므로 이 글의 제목이 의도하는 ‘사회적 실천’이라는 말은 결국 가정과 향촌사회, 국가를 대상으로 삼은 유학 이념의 실제화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장씨부인의 경우에는 ‘여자’가 갖는 시대적 한계로 인해 국가사회를 대상으로 한 실천은 찾아보기 힘들다. 그러므로 이 글에서는 ‘가정’을 중심으로 하여 장씨부인의 실천이 무엇을 지향하고 어떻게 행해졌는지를 검토할 것이다. 그리고 범위를 좀 더 넓혀 향촌 사회의 이웃들을 향한 부인의 관심과 배려에 대해서도 일차 자료에 의거해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반면, 윤악 이함의 사회적 실천에 대해서는 가정, 향촌 사회, 국가의 범위에서 골고루 살펴보고자 한다. 비록 관직에 오래 있지 않았고 고위직에 오르지도 못했지만, 윤악은 국가와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하여 유학적 이념을 실천하는 데에 온 힘을 쏟았기 때문이다.¹⁴⁾

장씨부인과 윤악 두 사람의 실천 무대가 가정과 향촌 사회의 범위에 서는 겹치게 되는데, 이 부분에서는 장씨부인이 시아버지 윤악의 영향을 깊게 받은 것으로 짐작된다. 장씨부인과 윤악은 유학의 이념을 공통분모로 하고 있었으며, 또한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관계로서 한 가족을 이루었다. 장씨부인은 친정아버지인 敬堂 張興孝(1564~1633)로부터 성리학 공부의 핵심인 持敬의 삶을 보고 배웠다. 그리고 이를 통해 평생 내적 성찰과

14) 雲巖 李涵과 張氏夫人은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관계이다. 이 점을 강조하면 雲巖 李涵이 논의의 중심이 되겠지만 이 글의 본래 의도가 張氏夫人의 삶과 인격을 총체적으로 조명하는 데에 있기 때문에 글의 전개과정에서 張氏夫人을 중심에 두고 雲巖 李涵과의 관계를 고찰하는 형식을 취하였다.

수양이라는 개인적 실천을 행하였다. 반면, 시아버지 운악과 시댁의 家風 으로부터는 교화와 구제라는 사회적 실천의 모범을 보고 배웠으며, 자신도 이들과 함께 평생토록 사회적 실천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였다. 즉 장씨 부인은 아버지와 시아버지, 친가와 시가로부터 받은 영향을 내재화하여 내·외적, 개인·사회적 실천을 모두 겸비한 성리학적 삶을 실천하였던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장씨부인과 운악 이함의 사회적 실천에 대한 구체적 논의의 장으로 들어가보도록 하자.

Ⅲ. 여중군자 장계향의 사회적 실천

1. 사회적 실천의 궁극 의도 : 聖人에로의 길

유학의 이상적 인간상은 ‘聖人’이다. 孟子 이전에는 성인이 우리의 현실과 동떨어진 이상적 존재로만 여겨졌다. 그런데 맹자는 이러한 성인의 경지가 노력을 통해 도달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는 노력하기만 하면 누구나 舜임금 같은 성인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¹⁵⁾ 성인에 대한 맹자의 이러한 이해는 신유학 특히 한국 성리학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退溪 李滉(1501~1570)은 배워서 성인이 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서 ‘성인이 되는 학문’[聖學]의 시작과 끝맺음에 걸친 일관된 요체로서 敬을 강조하였다.¹⁶⁾

15) 『孟子』, 「滕文公章句上」: “成鬻謂齊景公曰, 彼丈夫也, 我丈夫也, 吾何畏彼哉. 顏淵曰, 舜何人也, 予何人也, 有爲者亦若是. 公明儀曰, 文王我師也, 周公豈欺我哉.” 참조.

16) 『退溪集』卷7, 「聖學十圖·大學圖」: “是皆未始一日而離乎敬也. 然則敬之一字, 豈非聖學

그는 칠십 평생을 敬으로써 실천궁행하였다. 그리고 퇴계의 학맥을 계승한 경당 또한 敬을 강조하였고 일평생 持敬의 삶을 살았다. 경당의 이러한 聖人志向의 학문태도는 장씨부인에게 고스란히 전달되었다. 부인은 성인의 용모와 언어가 근본적으로는 보통 사람보다 다른 것이 없으며, 그 행동도 모두 人倫의 날마다 행하는 일로 보았다. 그러므로 그녀는 우리가 근심할 것은 오로지 성인의 도를 배우지 않는 것일 뿐이라고 생각하였다.

만약 聖인이 보통 사람의 부류가 아니고 보통 사람들의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존재라고 한다면 진실로 따라갈 수가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그 용모와 언어가 처음부터 보통 사람보다 다른 것이 없으며, 그 행동도 또한 모두 人倫의 날마다 하는 일이라면 사람들은 오직 성인의 도를 배우지 않는 것을 근심해야 한다. 진실로 성인의 도를 배우게 된다면 무슨 어려운 일이 있겠는가?¹⁷⁾

성인의 도리와 삶을 배우고자 하는 장씨부인의 의지는 어릴 때부터 강하게 드러났다. 대략 10세 전후에 쓰여진 것으로 알려진 ‘聖人吟’이라는 시에서 성인의 얼굴은 비록 볼 수 없지만 그 말씀(경전)을 들을 수가 있으니 결국 그 마음(도리)도 볼 수가 있을 것이라고 읊조렸다.

내가 聖인이 살던 시대에 나지 않았으니
 聖인의 얼굴을 볼 수가 없네
 그러나 聖인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으니
 聖인의 마음도 볼 수가 있겠네¹⁸⁾

始終之要也哉.” 참조.

17) 『貞夫人安東張氏實紀』附錄, ‘行實記’(『국역실기』, 27-8쪽).

18) 『貞夫人安東張氏實紀』詩, ‘聖人吟’(『국역실기』, 16쪽) : “不生聖人時, 不見聖人面, 聖人言可聞, 聖人心可見.”

부인은 항상 옛 성현의 말씀은 반드시 본받아야 한다고 하면서 글과 행실이 일치하지 않는 폐단을 탄식하였다.¹⁹⁾ 성인을 지향하는 장씨부인의 이러한 삶은 개인적인 성찰과 수양에서 그러했을 뿐만 아니라, 타인을 가르치고 권면할 때도 마찬가지였다. 장씨부인은 자녀를 훈육할 때도 다른 어머니들처럼 자애로움과 사랑만 보인 것이 아니라, 그 학문적 성취를 격려하고 성인을 닮고자 하는 참공부를 하도록 이끌었다. 부인이 남긴 글을 보면 잡다한 집안 大小事와 여성 특유의 감성적인 내용보다는 학문적 성취와 성인에의 길을 가도록 권면하는 글이 많다. 자녀들에 대한 이러한 교육의 모습은 당시 일반적인 어머니의 모습과는 많이 달랐다. 그래서 大山 李象靖(1711~1781)은 “부녀자가 거처하는 안방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지도하는 방법으로 자녀들을 교육한 것은 고금에 드물게 듣는 일이다.”²⁰⁾ 라고 평가하였다.

장씨부인의 문집에 손자들에게 주는 시가 두 편 수록되어 있다. 손자 [穩]가 친구와 작별하며 지은 시의 내용 중에 성인을 배우고자 한다는 부분이 있었다. 부인은 이것을 대단히 기뻐하여 그동안 스스로 멀리하였던 詩作을 하면서까지 손자를 격려하였다.

네가 벗과 작별할 때 지은 시를 보니
그 시 속에 성인을 배우려는 말이 있더구나
내 마음이 기뻐서 다시 칭찬하여
짧은 시 한 편을 지어 너에게 준다²¹⁾

19) 『貞夫人安東張氏實紀』附錄, ‘行實記’(『국역실기』, 26쪽).

20) 『貞夫人安東張氏實紀』書, ‘小識-李象靖’(『국역실기』, 20쪽).

21) 『貞夫人安東張氏實紀』詩, ‘贈孫新及’(『국역실기』, 17쪽) : “見爾別友詩, 中有學聖語, 余

그리고 또 다른 손자[裁]가 새해에 스스로를 경계하는 글을 짓자 그것을 가상하게 여겨 참선비가 될 것이라며 직접 시를 지어 격려하였다.

새해에 네가 자신을 경계하는 글을 지었으니
네 뜻은 지금의 사람과는 다르구나
어린 아이가 벌써 학문에 뜻을 두니
참다운 선비가 될 것이로다²²⁾

성인예로의 길을 권면하는 이러한 교육은 자식들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었다. 장씨부인은 집안의 여러 부녀자와 아직 冠禮를 행하지 않은 남자아이들에게도 옛 의리를 말해 주고 善으로 인도하는 일에 전심전력하였다.²³⁾ 바로 이런 면에서 후대 사람들은 장씨부인의 삶을 가장 압축적으로 요약하여 ‘女中君子’로 칭하였던 것이다.

장씨부인의 사회적 실천이 단순히 부녀자의 감성에서 나온 동정심의 발로거나, 아니면 시댁의 家風에 따른 무의식적인 행위로만 볼 수 없다. 성인예로의 길을 지향하는 자신의 삶에서 일관되게 행해지는 敬의 실천, 즉 持敬의 삶의 한 부분이었던 것이다. 부인은 내적으로 엄격한 자기성찰과 수양이라는 敬 공부를 평생동안 실천했고,²⁴⁾ 외적으로는 仁義禮智와

心喜復嘉, 一筆持贈汝.”

22) 『貞夫人安東張氏實紀』詩, ‘贈孫聖及’(『국역실기』, 17쪽) : “新歲作戒文, 汝志非今人, 童子已向學, 可成儒者眞.”

23) 『貞夫人安東張氏實紀』附錄, ‘行實記’(『국역실기』, 27쪽).

24) 대표적인 사례가 임신했을 때의 일화이다. 즉 張氏夫人이 임신하여 있을 때 마침 마을에 회갑연이 있어서 族親과 姻戚들이 모두 모여 妓樂이 함께 펼쳐지고 處容舞의 鬼面會가 자리 앞에서 번갈아 펼쳐졌다. 부인은 임신 중이었으므로 즉시 머리를 낮게 숙이고는 시선을 거두어 행사가 끝날 때까지 눈을 들지 않았다. 친정아버

孝悌忠信의 도리를 다했다. 부인은 항상 주위 사람들에게 우리 모두는 도덕적 善性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노력하면 충분히 성인에 이를 수 있다고 끊임없이 가르치고 권면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인의 사회적 실천에 있어서 이웃에 대한 구제행위나 연민의 情보다는 도덕적 善性으로 이끌어 가려는 성인에로의 열정을 가장 주목해야 한다.

2. 사회적 실천의 구체 사례

전통시대 여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의미 있는 사회는 ‘가정’이다. 그러므로 장씨부인에게 있어서도 외적 실천의 범위는 주로 가정을 중심으로 하여 이루어졌다. 그렇지만 가정에 있어서의 부인의 삶은 그 시대 일반적인 여성들의 모습과는 차이점이 있다. 가장 큰 차이점이 바로 앞서 인용한 대산 이상정의 평가, 즉 “부녀자가 거처하는 안방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지도하는 방법으로 자녀들을 교육한 것”에 있다. 예를 들면, 시아버지 운악이 작고하여 남편 石溪 李時明(1590~1674)이 喪中에 있을 때 부인은 홀로 집안일을 보살폈는데, 당시 여러 아들과 딸들을 가르치면서 孝悌忠信의 도리와 공경[敬]과 태만[怠], 의리[義]와 욕심[欲]을 구분하는 것에 대해 자세하게 가르쳤다.²⁵⁾ 이것은 장씨부인의 자녀교육이 어디에 중심을 두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이다.

장씨부인의 교육에 대한 열정은 명나라 멸망 후 칩거와 은둔을 반복

지인 敬堂이 이 일을 전해 듣고서 감탄해 말하기를 “너는 나에게 배운 바를 저버리지 않았구나.”라고 하였다.[『貞夫人安東張氏實紀』附錄, ‘行實記’(『국역실기』, 26-7쪽) 참조.]

25) 『貞夫人安東張氏實紀』附錄, ‘行實記’(『국역실기』, 27쪽) 참조.

하던 남편 석계를 고무시켜 자녀교육에 힘쓰게 한 사례에서도 잘 드러난다. 조선이 淸나라에 항복한 이후 失意하여 산간벽지에서 은둔하던 남편을 권면하여 후손들 교육에 전념하게 하였다. 부인의 권면에 힘을 얻은 석계는 이후 이사를 가는 곳마다 초하루와 보름에 『小學』과 性理學에 관한 글을 강론하고, 鄉射禮를 통해 후학들을 면려하였다.²⁶⁾ 전통시대에 있어서 학문에 대한 관심이 있고 또한 능력이 뛰어난 어머니가 있다 하더라도 자녀교육의 중심은 어디까지나 아버지일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장씨부인도 자녀교육의 중심에 남편을 세웠으며, 이를 통해 실의에 빠진 남편에게 삶의 적극적인 동기를 불어넣었다.

부인은 주위 사람들에게도 옛날의 義理를 말해주고 善行을 장려하였다. 선행을 장려하기 위해 부인이 자주 한 이야기 중에 이런 것이 있다.

善行은 사람들이 다 하고자 하는 것이다. 지금 어린아이에게도 “너 참 착하구나.” 하면 아이가 기뻐할 것이고, “너는 착하지 않구나.” 하면 아이가 화를 낼 것이다. 善行을 마땅히 해야 한다는 것은 사람들 마음이 다같이 그렇게 여기는 바이기 때문이다.²⁷⁾

이 말의 이면에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는 ‘선을 알 수 있는 능력’[良知]과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良能]을 가지고 있으며, 그리고 누구나 노력에 의해 성인이 될 수 있다는 성리학적 이념이 내재되어 있다. 착한 일하기를 즐거워하고 옳은 일하기를 좋아한 부인의 이러한 성품은 평생토록 한결 같았으며, 말년에 이르러 기력이 쇠약해졌을 때에도 오직 사람들

26) 『貞夫人安東張氏實紀』附錄, ‘行實記’(『국역실기』, 28-9쪽) 참조.

27) 『貞夫人安東張氏實紀』附錄, ‘行實記’(『국역실기』, 27-8쪽) 참조.

을 인도하여 착한 일을 하도록 계도하려는 뜻만은 조금도 줄어들지 않았다.²⁸⁾ 善에의 의지는 곧 聖인이 되기 위한 노력과 동일하고 이것을 곧 敬의 삶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장씨부인은 타인들에게 끊임없이 持敬의 삶을 권면하였고 또한 본인 스스로 그 모범을 보여주었다.

가정을 돌봄에 있어서는 媿家와 親家를 넘나들며 두루 정성을 쏟았는데, 특히 친정에 대한 관심과 孝行은 이미 널리 회자되는 바이다. 아버지 경당은 만년에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두었는데, 경당이 세상을 떠날 때 맏아들이 겨우 8세였다. 부인은 남편과 의논하여 맏이를 자신의 집에 데리고 와서 양육했으며, 얼마 후 다시 계모와 나머지 아우들을 데리고 와서 집을 지어 주고 살게 하였다. 그리고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神主를 모시고 와서 봄·가을의 享祀를 행하였으며, 친정의 아우들을 장가들이고 시집보내는 일에도 소홀함이 없었다.²⁹⁾ 이러한 어머니의 영향으로 인해 부인의 아들들과 경당의 아들들은 숙식을 같이 하고 학업을 함께 연찬했으며,³⁰⁾ 장성하여 가정을 이룬 후에도 서로 돈독하게 지냈다. 특히 나이가 비슷했던 경당의 맏아들[張鐵堅]과 葛庵 李玄逸(1627~1704)의 우의는 각별했다. 갈암은 억울한 일로 귀양살이하던 外叔[張鐵堅]을 찾아 湖西지역의 安興島까지 무려 세 차례나 다녀왔고,³¹⁾ 후일 바쁜 관직생활 중에도 외숙에게 서신을 보내 나이 어린 외사촌의 혼례를 염려하기까지 하였다.³²⁾ 유교적

28) 『貞夫人安東張氏實紀』附錄, '行實記'(『국역실기』, 31쪽) 참조.

29) 『貞夫人安東張氏實紀』附錄, '行實記'(『국역실기』, 29쪽) 참조.

30) 石溪集』卷3, 書: '寄子徽逸玄逸': "崇逸이는 누추하고 좁은 곳에 들어와 종일토록 글을 읽고 있으며, 張生의 형제들은 『家禮』를 공부하고 『大學』을 읽고 있다." (嵩兒入處卑湫, 終日而讀, 張生兄弟, 或講家禮, 或誦大學.)라는 구절을 참고할 것.

31) 『葛庵集』附錄, 卷1, '年譜'(癸卯年, 先生37歲條) 참조.

32) 이 서신은 『葛庵集』에 수록되어 있지 않다. 출처, 『영덕 갈암 이현일 종가』(서울:

전통사회에 있어서 행실의 근본이 孝悌忠信의 도리에 있음을 생각할 때 부인의 이러한 효성 또한 성인을 지향하는 持敬의 삶인 것을 알 수 있다.

부인이 남긴 詩文 중에서 특히 ‘鶴髮詩’가 유명하다. 이 시는 10세 전 후에 지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웃을 향한 부인의 어진 마음이 잘 드러나 있다.

白髮 늙은이가 병들어 누웠는데
아들을 떠나면 변방으로 떠나 보내네
아들을 떠나면 변방으로 떠나 보내니
어느 달에나 돌아올 것인가

白髮 늙은이가 병을 지니고 있으니
西山에 지는 해처럼 생명이 위급하네
두 손바닥을 마주 대고서 하늘에 빌었으나
하늘은 어찌 그렇게도 반응이 없는고

白髮 늙은이가 병을 무릅쓰고 억지로 일어나니
일어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네
지금도 오히려 이와 같은데
아들이 옷자락을 끌고 떠나간다면 어찌 할 것인가³³⁾

부인이 기록한 ‘自註’에 따르면, 이 시는 이웃마을의 어떤 사람이 변방의 軍役을 행하러 떠나게 되자 80세의 노모가 기절했다가 소생하기를 반

예문서원, 2013), 152쪽에 번역문이 수록되어 있다.

33) 『貞夫人安東張氏實紀』詩, ‘鶴髮詩’(『국역실기』, 15쪽) : “鶴髮臥病, 行子萬里, 行子萬里, 曷月歸矣 / 鶴髮抱病, 西山日迫, 祝手于天, 天何漠漠 / 鶴髮扶病, 或起或陪, 今尙如斯, 絕据何若.”

복하며 슬피한 끝에 거의 생명을 잃을 뻔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사정을 가슴 아프게 여겨 짓게 된 것이다.³⁴⁾ 부인은 시를 통해 아들과 헤어지는 노모의 통절한 심정을 너무나 절절하게 그려내고 있다. 이웃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새기고 해석한 부인의 惻隱之心이 생생하게 드러난다.

이웃에 대한 장씨부인의 관심과 사랑은 결혼 후에도 지속적으로 이어지는데, 특히 시댁의 家風과 부인의 천성이 함께 어울리며 더 적극적으로 넓은 범위의 사회적 실천으로 드러난다. 부인은 종들에게까지 자애로운 사랑을 펼쳤다. 어린 여종을 돌보아 주기를 마치 친딸처럼 하였다. 병이 들면 직접 음식을 먹여 주고 극진하게 간호하였고, 실수나 나쁜 일을 저질렀을 때에는 조용히 가르치고 타일러서 스스로 감화하여 복종하게 했다.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부인이 힘쓴 것은 이들이 스스로 착한 일을 하도록 교화하는 일이었다. 아랫사람에 대해서도 曲盡했던 부인의 삶의 모습은 다른 집의 종들이 모두 부인의 종이 되기를 원했었다는 일화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³⁵⁾ 또한 부인은 외롭고 의지할 곳 없는 떠돌이들에게도 온정을 베풀어 그들을 구휼하는 일에 진력하였으니, 이들이 부인의 仁德에 감화되어 죽어서라도 그 은덕을 갚고자 하는 사람까지 생겨나게 되었다고 한다.³⁶⁾ 이러한 기록들은 대부분 갈암 이현일이 지은 「行實記」에 수록되어 있다. 장씨부인의 아들인 갈암은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해(1680년)보다 24년 뒤인 1704년에 작고하였으니, 이 「行實記」는 아무리 늦춰 잡더라도 장씨부인 사후 30년이 지나기 전에 이루어졌다. 그러므로 「行實

34) 『貞夫人安東張氏實紀』詩, ‘鶴髮詩’(『국역실기』, 16쪽) 참조.

35) 『貞夫人安東張氏實紀』附錄, ‘行實記’(『국역실기』, 25-6쪽) ; 『貞夫人安東張氏實紀』追錄, ‘墓碑銘’(『국역실기』, 48쪽) 참조.

36) 『貞夫人安東張氏實紀』追錄, ‘墓碑銘’(『국역실기』, 48쪽) 참조.

記』에 수록된 기록들은 약간의 수식과 과장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사실에 바탕하여 충실하게 기록된 것들임을 알 수가 있다.

부인의 성품은 너그르웠으며 급한 일을 당해도 당황하지 않았고, 또한 기쁨과 노여움의 감정을 크게 드러내지 않았다고 한다. 『行實記』에는 이러한 부인의 성품과 관련한 일화 한 가지가 수록되어 있다. 젊은 시절에 부인이 베를 짜고 있었는데, 어느 날 어린 여종이 실수하여 이미 짜놓은 베를 절반이나 불태우게 되었다. 그러나 부인은 안색을 바꾸지 않고 천천히 뒷정리를 하였는데, 끝내 어린 여종을 꾸짖지 않았다.³⁷⁾ 이미 저질러진 일이며, 또한 여종이 이 일에 대해 충분히 두려워하고 잘못을 깨닫고 있었기 때문에 질책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렇지만 잘못을 하고도 뉘우치지 않으면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한 制裁를 하였다.³⁸⁾ 이러한 태도는 잘못을 하고도 뉘우치지 않는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잘못이라고 하는 『논어』의 가르침³⁹⁾과도 맥을 같이 한다. 이로 통해 우리는 장씨부인의 사회적 실천이 ‘관용’과 ‘원칙’이라는 두 가지 잣대에서 이루어졌음을 알 수가 있다.

당시 시대에 있어서 일반 여인들이 국가적 사건이나 정치에 대해 관심을 갖기는 어려웠다. 장씨부인은 비록 학문적 재능을 감추기는 했지만, 그 기상이 호방하고 식견과 도량이 원대하여古今의 事變에 대해 모르는 것이 없었다. 부인은 청나라가 조선을 침략하고 능멸하여도 이들을 물리칠 수 없는 현실에 대해 비분강개해 하며 자주 탄식했다. 그래서 항상 魯

37) 『貞夫人安東張氏實紀』附錄, ‘行實記’(『국역실기』, 30쪽) 참조.

38) 『貞夫人安東張氏實紀』附錄, ‘壙誌’(『국역실기』, 34쪽) 참조.

39) 『論語』, 「衛靈公」: “過而不改, 是謂過矣.” 참조.

仲連이 秦나라를 황제국으로 섬기는 것을 수치스럽게 여긴 것과 같은 마음을 가졌으며,⁴⁰⁾ 심지어 小戎처럼 군대를 일으켜 원수를 정벌하고 싶은 願望이 있었다고 한다.⁴¹⁾ 이러한 기상과 의지는 그 후손들에게 고스란히 전해져 그들의 천하 경륜의 이상에 큰 영향을 주게 된다. 청나라에 항복하는 치욕을 당한 뒤에 남편 석계는 세상을 피해 자꾸만 궁벽한 곳으로 옮겨갔는데, 부인은 남편과 뜻을 같이하였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조금도 원망하지 않았다.⁴²⁾ 여자였기 때문에 장씨부인의 실천 활동이 기본적으로 가정과 향촌 사회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했지만, 그녀의 관심은 국가적 大事에까지 미쳤다. 즉 부인은 ‘여성’이라는 한계를 지녔고, 또한 일생을 鄉里에서 지냈지만 결코 국가 사회의 존재를 잊지 않았던 것이다. 그녀는 이민족의 침입을 당해 국가가 위기상황에 처하게 되자 어찌할 수 없는 현실에 통분해했고, 국가를 사랑하고 염려하는 忠信의 도리와 不義함에 맞서 싸우려는 굳은 의지를 자녀들에게 강하게 전해 주었다. 바로 이러한 모습에서 우리는 장씨부인의 삶을 ‘敬으로써 자신을 성찰하고’[敬以直內] ‘義로써 사회를 바르게 하고자’[義以方外] 하는 敬義挾持의 성리학적 이상을 실천한 것이라고 평할 수 있다.

40) 魯仲連은 戰國時代 齊나라의 高士이다. 그는 無道한 秦나라를 높여 天子國으로 추대하는 일에 동조하기보다는 차라리 동쪽 바다에 빠져 죽기를 원한다고 맹세한 사람이다.

41) 小戎은 『詩經』 「秦風」에 나오는 篇名인데, 兵車를 의미하기도 한다. 秦나라 서쪽에 있는 오랑개가 강성하게 되자 秦나라 襄公이 天子의 명을 받들어 오랑개를 정벌했던 일을 기록한 시이다.

42) 『貞夫人安東張氏實紀』追錄, ‘墓碑銘’(『국역실기』, 48쪽) 참조.

IV. 윤악 이함의 사회적 실천

雲嶽 李涵(1554~1632)의 사회적 실천은 가정, 향촌 사회, 국가를 통해 폭넓게 펼쳐졌다. 윤악의 사회적 실천의 이론적 근거는 ‘仁’에 있다. 仁의 단서인 惻隱之心은 반드시 ‘무엇에 대한’ 측은지심이다. 즉 仁의 실천의 의미는 본질적으로 다른 존재를 염두에 둘 수밖에 없다. 윤악은 평소 후손들에게 修己治人을 강조했는데, 修己治人이라 함은 자신의 인격을 연마하고 이를 타인(사회)에까지 넓혀나가는(실천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때 修己와 治人의 핵심이 모두 ‘仁’이다. 仁은 『논어』에서는 孝悌와 같은 天倫의 사랑으로 설명되고, 『맹자』에서는 사랑의 마음인 惻隱之心으로 설명된다. 그리고 성리학 특히 한국성리학에 와서는 仁을 체득하고 실천할 수 있는 방법적 원리로서 ‘敬’이 강조된다.

윤악은 ‘학문을 논하는 글’[論學說] 첫 머리에서 우선 修己治人을 강조하고, 아울러 孝悌와 仁義의 도리를 강조했다.

四書 중의 千 마디, 萬 마디 말이 모두 修己治人을 위해 말한 것이다. …… 『대학』의 格物致知와 誠意正心の 공부는 곧 자신을 닦는 慎密한 바탕이며, 絜矩의 도리도 이로 말미암아 미루어 나갈 수 있다. …… 孝悌를 먼저 실천하지 않으면 나라를 다스리는 도를 알 수 없고, 仁義에 근본하지 않으면 王道의 위대함을 알 수가 없다. …… 대저 군자의 학문은 修己治人보다 절실한 것이 없다.⁴³⁾

43) 『雲嶽集』2卷, 雜著: ‘論學說’(『國譯雲嶽先生文集』, 李廷燮·李章佑 共譯, 1992, 141-3 쪽) 참조. 번역은 기본적으로 ‘國譯’ 자료를 따랐으며, 고쳐 번역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수정하였음. 아래에서 『國譯雲嶽先生文集』을 인용할 경우에는 『국역윤악집』으로 줄여서 표기함.

그리고 그는 治人の 도리로서 仁을 강조하였는데, ‘策文’에서 “어진 사람은 대적할 이가 없다.”⁴⁴⁾ “능히 仁政을 행하면 이 백성들이 그 윗사람을 친히 해서 官長을 위해 죽을 것이다.”⁴⁵⁾라고 하는 『맹자』의 구절을 인용하였고, 또한 “임금의 도는 至誠과 仁愛를 근본으로 삼는다.”라고 하는 程子の 말을 인용하였다.⁴⁶⁾ 또한 그는 仁을 행하는 근본으로 敬을 강조하였다.

원하옵건대 전하께서 이 마음을 이 敬으로 보존하고 이 마음을 이 敬으로 지켜서, 덕을 닦고 仁을 행하는 근본으로 삼으소서. 그렇게 하면, 萬 가지 일을 시행하고 萬 가지 변화를 조치함에 있어서 오직 전하의 하고자 하는 바대로 될 것이며 하늘에 영구한 운명을 비는 실상도 敬 한 글자에서 벗어 나지 않을 뿐입니다.⁴⁷⁾

운악의 敬論은 성리학에서 기본적으로 강조하던 공부이기는 하나, 특히 퇴계의 학맥을 잇는 경당 장흥효의 敬論과 더불어 장씨부인의 삶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 즉 경당 장흥효, 운악 이함과 장씨부인의 삶이 持敬의 삶이라는 점에서 공통지점을 확보하게 되는 것이다.

治人の 도리로 仁愛를 강조한 운악의 이념은 國難의 시기에 특히 빛을 발휘하게 된다. 1592년(선조25)에 모친이 별세하고, 이 해 4월에 임진왜

44) 『孟子』, 「梁惠王章句上」: “仁者無敵.”

45) 『孟子』, 「梁惠王章句下」: “君行仁政, 斯民親其上, 死其長矣.”

46) 인용한 程子の 말은 원문이 “程子曰, 君道以至誠仁愛爲本.”으로 되어 있다. 雲嶽은 이 말을 程伊川(頤)의 말이라고 하였으나, 현대학자들은 대부분 程明道(顥)의 말로 보고 있다. [『雲嶽集』2卷, 策: ‘己酉殿策’(『국역운악집』, 175쪽) 참조.]

47) 『雲嶽集』2卷, 策: ‘庚子殿策’(『국역운악집』, 170쪽).

란이 발발하였다. 왜구들이 노략질을 일삼고 농사 또한 흉년이 들어 길에는 굶어죽는 시체들이 즐비하였으며, 심지어 사람들끼리 서로 잡아먹기도 하고 이 틈을 타서 私利를 도모하는 자들은 결국식 한 말과 중 한 사람, 또는 논 한 마지기를 맞바꾸기도 했다. 운악은 국가와 민족을 생각하고 비분강개하여 눈물을 뿌리며 家財를 털어 굶주린 백성들을 구제하였다. 그는 날마다 굶주린 백성들을 살려내는 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여기며, 집안 창고를 풀고 도토리를 주어다가 삶아 그릇에 담아 내놓고는 구걸하는 자가 오면 집에 들여 머물게 하면서 그것을 먹여주고 혹은 자루에 담아서 보내주기도 했다. 멀고 가까운 곳에서 소문을 듣고 모여드는 자가 하루에도 수백 명이나 되었는데, 이에 힘입어 살아난 사람이 대단히 많았다.⁴⁸⁾ 도토리죽을 활용한 구제의 전통은 후일 장씨부인에게로 이어진다. 장씨부인 또한 도토리죽을 쑤어 배고픔에 허덕이는 자는 누구든지 와서 먹게 했다. 석계와 장씨부인이 결혼하여 분가한 후 오랫동안 거처했던 영양 석보의 집 부근에는 지금도 장씨부인이 심어놓았다고 전해지는 약 400년 된 참나무 수십 그루가 남아있다. 재령이씨 집안의 도토리죽 구제 사업이 며느리 장씨부인을 통해 지속적으로 계승되고 발전되었다는 사실의 방증일 수 있다.

이웃에 대한 仁愛의 실천은 운악뿐만 아니라 그 부인인 眞城李氏도 마찬가지였다. 壬亂 때에 江右(경남 서부) 지역의 한 선비가 난을 피해 寧海에 와서 머물고 있었는데, 하루는 회식 모임에 참여할 기회가 있었으나

48) 『雲嶽集』3卷, 附錄: '行狀'(『국역운악집』, 179쪽); 『雲嶽集』3卷, 附錄: '墓碣'(『국역운악집』, 188쪽); 『雲嶽集』3卷, 附錄: '墓誌銘'(『국역운악집』, 191쪽); 『雲嶽集』3卷, 附錄: '家乘'(『국역운악집』, 200쪽) 참조.

나들이 할 옷이 없어 나갈 수가 없었다. 이에 윤악이 자신이 입던 옷을 벗어서 그에게 주려 하니 부인은 “남에게 주려면 새 것을 주어야지 어떻게 헌 옷을 주겠습니까?”라고 말하고, 장롱 안에 간직해 두었던 새 옷을 꺼내주었다. 그리고 윤악이 기근을 당한 사람들을 매일처럼 구제하자 부인 또한 그 뜻을 받들어 술과 가마를 길어놓고, 죽을 쑤어 그들을 먹였다. 굶주린 사람들이 떠나 갈 때면 반드시 양식을 싸서 그들에게 주었다. 멀리 살던 윤악의 친구들 중에 가족을 이끌고 와서 의지하는 사람들도 많았고, 이들 중 어떤 이는 달포가 넘도록 머물기도 했으나 한 번도 싫어하는 기색을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그들이 떠나갈 때면 간혹 옷을 싸서 주기도 하니, 사람들이 모두 부인의 덕에 감동되었다고 한다.⁴⁹⁾ 윤악 부부의 이러한 구제 행위는 후손들에게는 물론이려니와 장씨부인의 삶에도 큰 영향을 끼쳤다.

윤악은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의 곤궁함을 구해 주었으나, 그들의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바로잡아 주었으며, 고아가 된 甥姪을 교육함에 있어서도 엄함과 恩情을 함께 행했다.⁵⁰⁾ 그리고 禮의 敎化를 중시하여 이를 家法으로 삼았으니, 혼인·장례·손님접대·제사 때에는 반드시 禮法에 따라 행사를 거행하였다.⁵¹⁾ 특히 『맹자』의 五倫說을 중요하게 여겨 손자인 存齋 李徽逸(1619~1672)에게 직접 글로 적어 전해주었으며, 후손들에게 오로지 충성하고 효도할 것을 강조하였다. 윤악은 거처하던 집 서쪽에 대청을 짓고 ‘忠孝堂’이라는 현판을 걸었는데 이 또한 후손들에게

49) 『雲嶽集』3卷, 附錄: ‘家乘’(『국역윤악집』, 202-3쪽) 참조.

50) 『雲嶽集』3卷, 附錄: ‘行狀’(『국역윤악집』, 185쪽); 『雲嶽集』3卷, 附錄: ‘墓誌銘’(『국역윤악집』, 195쪽) 참조.

51) 『雲嶽集』3卷, 附錄: ‘家乘’(『국역윤악집』, 201쪽) 참조.

‘忠’과 ‘孝’를 권면하기 위한 것이었다.⁵²⁾ 그의 이러한 가르침은 비단 가정에만 그친 것이 아니라 향촌 사회[寧海]에까지 심대한 영향을 끼쳤다. 그래서 후대 사람들은 寧海가 문화전통을 가진 고장으로 탈바꿈한 것이 운악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라고 말한다.⁵³⁾ 寧海의 지리적 여건이 산과 바다에 끼어 있어 그 풍속이 말타기와 활쏘기를 잘하고 문예에는 힘쓰지 않았으나⁵⁴⁾ 운악으로 말미암아 풍속이 변하여 예절문화와 학술사상이 풍성한 고을로 변하게 되었다는 뜻이다.

후손들과 향촌 사회의 젊은이들을 교화하고 고무시키는 일에 헌신한 운악의 열정은 여러 가지 일화를 낳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마을 風水와 관련한 사례이다. 전해오는 故事 중에 운악이 살던 仁良里와 명나라 장수 李如松이 관련된 風水 이야기가 있다. 李如松은 이 지역의 地勢를 살펴본 뒤에 큰 인물이 태어날 것이라 예언하고 여러 곳의 地脈을 끊었다고 한다. 구체적으로 地脈의 핵심처에 사기 말뚝을 박고 산허리를 잘라내 땅기운의 흐름을 막거나 끊어버렸다는 이야기가 지금까지 마을사람들에게 전해온다. 그런데 관직에서 퇴임하여 고향으로 갓 돌아온 운악이 가장 먼저 한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이어송이 끊어버린 地脈을 살리는 일이었다.⁵⁵⁾ 비판적 입장에서 보면 미신을 신봉하는 어리석은 행위라고 할 수 있겠지만, 다른 면에서 보면 이 고장에서 훌륭한 인재가 배출되기를 바라는 강한 신념에서 나온 행동이었다. 비판적 전설로 인해 마을 청년들이

52) 『雲嶽集』3卷, 附錄: ‘忠孝堂記’(『국역운악집』, 205쪽) ‘密菴’의 글 참조.

53) 『雲嶽集』3卷, 附錄: ‘行狀’(『국역운악집』, 186쪽); 『雲嶽集』3卷, 附錄: ‘家乘’(『국역운악집』, 201쪽); 『雲嶽集』3卷, 附錄: ‘祭文(金遇)’(『국역운악집』, 215쪽) 참조.

54) 『雲嶽集』3卷, 附錄: ‘家乘’(『국역운악집』, 201) 참조.

55) 李在崑, 『忠孝堂史』수정판(경북: 충효당, 1997), 17-8쪽 참조.

꿈을 꺾고 희망을 접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한 의식적인 행위였을 것이다.

密庵 李裁(1657~1730)는 ‘忠孝堂’ 記文을 쓰면서 증조부인 윤악의 삶을 회고하였는데, “가정에 있을 때에는 먼저 윤리를 바로잡고 恩義를 돈독히 하여 집을 다스렸고, 관직에 나아가서는 하는 일마다 그 책임을 다하였다. 중년에 비록 병이 들어 벼슬을 그만두었지만 그 마음만은 국가를 생각하지 않음이 없었다.”⁵⁶⁾라고 하였다. 즉 윤악은 관직에 있을 때나 있지 않을 때나 항상 국가를 생각하였고, 자신에게 관직이 맡겨지면 직책을 가리지 않고 최선을 다해 자신의 책임을 완수하였다. 그의 사회적 실천상은 임진왜란이라는 國難의 시기에 더욱 빛을 발했다. 향촌 사회에서는 여러 가지 난민구제 사업에 진력하였고, 또한 官軍의 군량미 조달에도 큰 공헌을 하였으며, 그 후 金泉道察訪과 宜寧縣監 등의 직책을 맡아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민생의 치안과 전란의 복구에 최선을 다하였다. 이제 남아 있는 기록물을 통해 구체적 사례 몇 가지를 확인해보도록 하자.

壬亂 당시에 순찰사 韓孝純(1543~1621)이 군대를 거느리고 眞寶縣 경내에 이르렀는데, 군량미가 없어서 군사들이 끼니를 거르고 있었다. 이 소식을 들은 윤악이 쌀을 운반하여 그들을 구제하니 한효순이 매우 기뻐하면서 임금의 피난처인 行在所에 글을 올려, “李涵은 비록 몸은 草野에 있으나 생각은 나라에 있습니다. 당초부터 賞을 바라는 마음이 없이 창졸간의 급한 일을 구제하였습니다.”라고 보고하였으나, 마침 길이 막혀 보고서가 임금께 올라가지 못했다. 잠시 뒤에 명나라 군사들도 이 지방에 몰려들었는데, 그들 또한 보급 물자가 다 떨어져서 군량미가 부족하게 되

56) 『雲嶽集』3卷, 附錄: ‘記-忠孝堂記(李裁)’(『국역윤악집』, 205쪽).

었다. 이에 순찰사 한효순이 운악으로 하여금 동해 바다의 鹽田을 관장하게 해서 軍費에 충당하게 하니, 운악이 적절한 계획을 세우고 익숙하게 염전을 운영하여 많은 도움을 주었다.⁵⁷⁾ 이러한 사례들은 모두 운악의 經世的 능력과 이 지역에 있어서 그의 位相을 짐작케 한다.

운악은 內·외의 관직생활을 경험하였는데, 이것은 기간으로 보아도 짧은 시기이고 지위로 보아도 그의 능력과 명성에 비해 낮은 직책이었지만 그는 맡은 일마다 최선을 다해 임무를 수행했다. 外職으로는 金泉道察訪과 宜寧縣監을 역임했다. 먼저 그는 1599년(선조32)에 梧里 李元翼(1547~1634)의 추천을 받아 金泉道察訪에 임용되었다. 이때는 전쟁이 갓 끝난 뒤였기 때문에, 그는 부임하자마자 “일의 크고 작고 간에 다만 나의 마음을 쏟을 뿐이다.”라고 다짐하며 고을 안정에 최선을 다했다. 운악은 이 지방을 한 해 남짓 다스렸지만 많은 공적을 남겼다.⁵⁸⁾ 당시 명나라 장수 覽遊擊이 星州에 머물렀는데, 明軍의 횡포가 극심하였다. 그들의 횡포에 못이겨 수령들의 사직과 과면이 잇따르고 吏民들도 도망하는 자가 많았다. 이에 순찰사가 운악에게 공석 중인 星州牧의 일까지 겸하게 하였다. 운악은 檄文 또는 직접 對面을 통해 남유격에게 明軍의 作弊를 말하고 그 처리방법을 제시하였다. 남유격은 조리정연한 운악의 直言에 설득당하여 명군의 횡포를 엄금하였으며, 이후 두 사람은 친밀한 관계가 되어 남유격이 운악에게 朝服, 藥物, 椅子 등의 선물을 보내기도 했다.⁵⁹⁾ 그 후 성주 지역이 편안해지게 되었으며, 吏民들이 운악을 마치 부모처럼 신뢰하게

57) 『雲嶽集』3卷, 附錄: ‘行狀’(『국역운악집』, 179-80쪽) ; 『雲嶽集』3卷, 附錄: ‘墓誌銘’(『국역운악집』, 191쪽) 참조.

58) 『雲嶽集』3卷, 附錄: ‘墓碣’(『국역운악집』, 188쪽) 참조.

59) 『雲嶽集』3卷, 附錄: ‘墓誌銘’(『국역운악집』, 191-2쪽) 참조.

되었다고 한다.

운악은 1607년(선조 40)에 宜寧縣監으로 나갔다. 宜寧縣은 壬亂 당시에 왜적들로부터 큰 피해를 입었으므로 운악은 온갖 힘을 다해 백성들을 慰撫하고 아전들을 단속하며 시책을 융통성 있게 시행했다. 그로 인해 몇 해가 지나지 않아 창고가 차게 되고 관내의 인구수가 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에 鄕校가 전쟁 중에 불타고 없어져서 성현들의 位牌가 민간인 집에 보관되어 있었고 스승과 학생들이 마땅히 공부할 장소도 없었다. 이에 운악이 지도층의 인사들을 불러 모아 다시 향교를 세울 계획을 의논한 후, 향교 건물들을 모두 법도에 맞게 세우고, 향교에서 부릴 종들과 온갖 필요한 물자를 갖추어 주었다. 그리고 매월 초하루와 보름에 여러 儒生들을 모아 『小學』과 『四書』를 강의하며 孝悌의 도리에 힘쓸 것을 권유하니, 이때로부터 이 지역에 학문과 덕행에 힘쓰는 선비들이 점차 흥기하였다.⁶⁰⁾ 당시 그가 의령 향교의 儒生들을 진작시키기 위해 지은 시가 그의 文集에 수록되어 있다.

고을을 禮樂으로 다스리지 못했는데
백성들은 鄒魯의 고장 뽑내네
당부하노니 그대들은 학문에 힘써
둘도 없는 國士되기 바라네.⁶¹⁾

운악이 맡은 內職으로는 義禁府의 都事와 司宰監 直長 등이 있다. 그는 1603년(선조 36)에 추천을 받아 의금부 도사가 되었다. 이때 범죄 사건이

60) 『雲嶽集』3卷, 附錄: '行狀'(『국역운악집』, 182-3쪽); 『雲嶽集』3卷, 附錄: '墓碣'(『국역운악집』, 189쪽); 『雲嶽集』3卷, 附錄: '墓誌銘'(『국역운악집』, 195쪽) 참조.

61) 『雲嶽集』1卷, 詩: '留贈宜春校中諸彦'(『국역운악집』, 85쪽).

많이 일어나 문서가 수북이 쌓여 있었다. 마침 義禁府의 堂上이 윤악에게 일을 도맡아 처리할 것을 지시하였는데, 그는 부지런하고도 민첩하며 또한 세밀하게 일처리를 하여 조금의 착오도 일으키지 않았다. 그리고 司宰監 直長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 부서에서는 닷새마다 한 번씩 戶曹의 관리들이 나와서 함께 업무를 보았는데, 일찍부터 어떤 고질적인 폐단이 있어 윤악이 누차 이 점을 지적하여도 상관은 관례에 따른 일이라 하여 그냥 덮어두려 하였다. 이에 윤악이 조금씩 그 일을 더 자세하게 파헤치게 되자 마침내 상관이 잘못을 사과하고 장부를 가져다 대조하여 윤악의 말대로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였다.⁶²⁾ 윤악은 관리로서 사무처리를 함에 있어서 청렴하고 공정했고, 맡은 일에 익숙하여 상관과 부하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비록 보잘 것 없는 직책을 맡더라도 업무를 합당하게 처리하였고, 조그마한 고을 수령을 맡더라도 禮樂으로 고을을 다스렸다. 그리고 향촌 사회의 사람들을 대함에 있어서는 어려운 여건에 있는 사람들을 구제하고 그릇된 일을 바로잡았으며, 규율로써 후배들을 인도하고 권유하였다.⁶³⁾ 그렇지만 그는 자만하지 않고 항상 자신을 낮추고 더욱 성실하고 자 애썼다.

관리 노릇 下下임을 알겠거니
아진과 백성 보는 데에 면목없네⁶⁴⁾

62) 『雲嶽集』3卷, 附錄: '墓誌銘'(『국역윤악집』, 193쪽) 참조.

63) 『雲嶽集』3卷, 附錄: '墓誌銘'(『국역윤악집』, 195쪽) ; 『雲嶽集』3卷, 附錄: '祭文(南挺 등)'(『국역윤악집』, 211쪽) 참조.

64) 『雲嶽集』1卷, 詩: '病中寄張德哉李希文諸君'(『국역윤악집』, 83쪽).

百里라 한 고을에 遺愛없는 것 부끄럽고
 여러 父老 옛 풍모 있는 것 사레하네⁶⁵⁾

위에서 인용한 두 편의 시는 모두 운악이 스스로를 반성하고 牧民官으로서의 책무에 더욱 힘쓰겠다는 다짐의 내용들이다. 반성과 자기성찰 없는 인생은 독단일 수밖에 없다. 운악은 관직에 있으면서도 항상 스스로 부족하다 낮추고, 책무에 최선을 다하고자 자신을 책려하였다.

운악은 일찍부터 鶴峯 金誠一(1538~1593)에게 從遊하여 退溪學의 遺訓을 받았다.⁶⁶⁾ 비록 운악이 大海 黃應淸(1524~1605)의 문하에서 어릴 적부터 수학했다고는 하나 학풍으로 볼 때는 학봉의 영향이 짙게 드러난다. 장씨부인의 아버지인 경당 장홍효가 학봉의 수제자인 점을 고려하면 이들 간의 사상적 연대성을 짐작해볼 수 있다. 운악은 평소 “문장의 技藝 배우지 말고, ‘군자의 유학자’[君子儒]가 되어야 하리”⁶⁷⁾라고 읊조리며 참선비가 될 것을 다짐하였다. 그에게 있어서 사회적 실천은 修己의 연장이자 완성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그는 관직에 있으면서도 항상 스스로를 돌아보고 부족한 점을 책려하였으며, 타인의 교화와 구제에 온 힘을 쏟았던 것이다.

65) 『雲嶽集』1卷, 詩: ‘次張德哉韻示座中父老’(『국역운악집』, 86쪽).

66) 『雲嶽集』, ‘序’(『국역운악집』, 42쪽); 『雲嶽集』3卷, 附錄: ‘行狀’(『국역운악집』, 178쪽); 『雲嶽集』3卷, 附錄: ‘墓誌銘’(『국역운악집』, 190쪽) 참조. 특히 雲嶽의 부인 眞城李氏는 退溪先生의 族孫女이고 鶴峯과는 內外從問이다.

67) 『雲嶽集』1卷, 詩: ‘丁亥仲秋讀書廬江書院……’(『국역운악집』, 49쪽).

V. 맺음말

운악 이함은 사돈 관계인 경당 장흥효와 畏友처럼 지냈다. 자신의 생일을 맞아 집에 찾아온 사돈과 시로써 酬酌하기도 하고 또한 책상을 맞대 놓고 학문적 토론에 빠지기도 했다.⁶⁸⁾ 수시로 서신으로써 안부를 전하고 심지어는 “장마 더위에 공부의 상황이 안정되고 성대함을 알게 되어 우리러 사모하는 마음 가득합니다.”⁶⁹⁾라고 하며 경당의 공부 상황에까지 관심을 표하게 된다. 두 사람의 이러한 좋은 관계는 장씨부인을 통해 善한 매듭을 짓게 된다.

장씨부인은 친정아버지로부터 聖人の 학문, 즉 敬의 이론과 持敬의 실천을 배웠다. 그리고 媿夫로부터는 이웃과 사회를 향한 뜨거운 관심과 함께 나누는 삶을 배웠다. 즉 장씨부인은 엄격한 자기성찰과 수양이라는 내면적 실천에서는 경당의 영향을 깊게 받았고, 개방적 인품과 타인을 향한 관심 및 사회적 실천이라는 측면에서는 운악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다. 유학에 있어서 修己와 治人の 이념을 단절적으로 이해할 수 없듯이, 실천에 있어서도 內와 外 어느 한 쪽에만 편중할 수 없다.

필자는 이 글을 통해 장씨부인과 운악 이함의 사회적 실천을 설명하고자 했다. 그리고 양자 간의 유기적 관계에 주목하면서 운악 이함의 사회적 실천성과 그 家風이 장씨부인의 삶의 행적을 구성하는 데에 상당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해석하였다. 운악과 장씨부인은 모두 사회적 실천에 있어서 仁·義·禮·智의 측면을 구현하였다. 우선 운악의 경우를 보면 백성들을

68) 『敬堂日記』下卷, 壬戌年(1622年, 光海14), 4月 2,4,5,6,7日 條 참조.

69) 『雲嶽集』2卷, 書: ‘答張行源’(『국역운악집』, 129쪽) 참조.

구제함에 있어서는 仁이, 관직[內職]에 있을 때 상관에게 바른말을 하고 올바르게 처신한 점에 있어서는 義가, 또한 가정에서 자녀들을 교육하고 향촌사회의 젊은이들을 교화할 때에는 禮의 덕목이 구체화 된다. 그리고 관직에 있을 때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鹽田을 일궈 군량미를 확보하는 등 그러한 經綸과 處世法에 있어서는 智의 덕목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장씨부인 또한 사회적 실천의 場이 다를지라도 仁·義·禮·智의 구현이라는 측면에서는 운약과 맥을 같이 한다. 이웃에 대한 惻隱之心과 사랑의 마음을 펼치는 부분에서는 仁이, 자녀들과 종을 대하면서 자애로우면서도 분명한 制裁와 규율이 있었다는 점에서는 義가, 또한 남편을 相敬如賓의 禮로써 대하고 나이 어린 계모에게도 깍듯하게 어머니로 대우한 점에서는 禮가, 그리고 성격이 엄격한 남편을 지혜롭게 권면하여 자녀교육에 힘쓰게 한 점 등은 智의 덕목이 두드러진다.

운약과 장씨부인은 남성과 여성이라는 차이로 인해 활동하던 사회적 무대와 그 역할이 달랐지만 두 사람 모두 자신의 삶에 있어서 유학적 이념에 바탕한 사회적 실천성을 충분히 보여주었다. 그리고 媿父-子婦라는 가족관계를 배경으로 하여 두 사람 간에 아름다운 관계를 이루고 또한 그것을 家風으로 확보하여 후손들과 향촌 사회의 젊은이들에게 聖人에로의 길을 보여주게 되었다.

참고문헌

『論語』, 『孟子』, 『詩經』
『張載集』

『葛庵集』, 『敬堂日記』, 『敬堂集』, 『密菴集』, 『石溪集』, 『雲嶽集』, 『貞夫人安東張氏實紀』,
『存齋集』, 『退溪集』

- 금장태, 『유교의 사상과 의례』, 서울: 예문서원, 2000.
- 김윤제 外, 『안동의 선비문화』, 서울: 아세아문화사, 1997.
- 김태길 外, 『윤리와 이념』 개정판, 서울: 박영사, 1994.
- 안동대학교 안동문화연구소 편, 『안동 금계마을』, 서울: 예문서원, 2000.
- 안병걸, 『갈암 이현일 경세의 뜻을 품은 큰 선비』, 안동: 한국국학진흥원, 2008.
- 이동철 外, 『21세기의 동양철학』, 서울: 을유문화사, 2005.
- 이은상, 『사임당의 생애와 예술』 완성7판, 서울: 성문각, 1994.
- 李在崑, 『忠孝堂史』 수정판, 경북: 충효당, 1997.
- 장윤수, 『경북 북부지역의 성리학』, 서울: 심산출판사, 2013.
- 장윤수, 『영덕 갈암 이현일 종가』, 서울: 예문서원, 2013.
- 溝口雄三 外 編著, 『中國思想文化事典』, 서울: 민족문화문고, 2003.

Abstract

The Study of Social Practice of *Jang Gye-hyang* and *Lee Ham*

Jang, Yun-Su

In this paper, I will expound *Jang Gye-hyang* and her father-in-law, *Lee Ham*'s social practice. By closely focusing on their organic relationship, I will explain that *Lee Ham*'s social practices and his family customs largely impacted *Jang Gye-hyang*'s life.

Although *Jang Gye-hyang* was a paragon of feminine virtue, few primary sources exist about her today. Fortunately, there are many stories about her but there is little certainty regarding the accuracy of these stories. For this reason, I recasted the story of *Jang Gye-hyang* and *Lee Ham* on the basis of books. Throughout her life, *Jang Gye-hyang* learned to be a sage through a number of influential people. She learned the theory and practice of esteem from her father, *Jang Heung-hyo*, who helped her develop sincere concern for her neighborhood and society.

She was strongly impressed by his inner peace, strict self-examination and morality. And she learned to share life from her father-in-law who further developed her open-mindedness and concern for others and social practice. Therefore, in this paper I have intended to explain that *Jang Gye-hyang*'s life and personality are the result of the harmonious assimilation of both her family's customs.

Key Word

Jang Gye-hyang, *Jang Heung-hyo*, *Lee Ham*, Saint, Social practice

▪ 논문투고일 : 2015.1.11 심사완료일 : 2015.2.4 게재결정일 : 2015.2.14